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 낮으면 낮은대로 높으면 높은대로 각자 다 으뚝입니다

여러분과 또 같이 한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더운 여름은 지나가고 가을로 접어드는군요. 우리 마음자리는 항상 사철이 따로 없듯이, 공부하는 데도 서로 도반으로서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정신계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리만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도 없거나 벗어날 수도 없고, 한 생만 이렇게 끈고하게 사는 게 아니라 세세생생을 끝간 데 없이 그렇게 살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렇게 공부해야만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극락세계나 지옥세계를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현 세상에서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광대한 문제들, 그 묘한 문제들, 그 수라장 같은 세상, 우리가 모두 현실에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미생물에서부터 수많은 생명들이 짝을 짓죠. 그 모든 생명들이, 인간까지 말입니다. 부모가 됐다가 자식이 됐다가,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수억겁 평년을 거쳐서 이렇게 인간세계까지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 미래 현재가 없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찰나찰나 닥쳐오는 문제들, 찰나찰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모두 그런 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만 되며, 수많은 광년 겁을 지나오면서 그 누적된 문제들,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면서 착을 버리지 못한 채, 또는 관습에 의해서 꼬달리는 습이 그대로 남아서 누적돼서 돌아가는 이 모두를 어떻게 해야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모두 부처님 마음과 더불어 같이 아시고 계시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광대하고 어떻게 보면 도깨비장난 같고 어떻게 보면은 아수라장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묘한 이치에 다달아서 신비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합류화시켜서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며, 한 번 쳐다보고 웃고 한 번 내려다보고 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공부를 안 한다면은 세세생생에 끝간 데 없이 그렇게 굴러야만 합니다. 우리

는 물주머니에서의 삶과 같습니다. 지금 바다 속 생명들이 물 속에서만이 살 수 있도록 돼 있듯이 또 물 속을 벗어나면은 죽듯이, 우리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기주머니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겁니다. 벗어나야 어떻게 해보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그렇게 수없이 찰나찰나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낳은 부모만 육의 부모가 아니고 수억겁을 돌아오면서, 걸어오면서 우리는 자식이 됐었고 부모가 됐었는데 어떻게 내 부

모, 육의 부모 하나만이 내 부모라고 하겠습니까? 둘이 아니라는 도리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부모도 둘이 아니고, 자식도 둘이 아니고, 나 자체도 둘이 아니고, 모두가 일체가 다 공(空)했다. 즉 말하자면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공했다. 그대로 여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여여한 줄을 안다면 이렇게 고생도 안 해요. 고생이라고 할 건 없지만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듯이 '여여하다, 공했다.' 이런 뜻은 여러분이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가고 오는 거, 만나는 거 먹는

거 이런 것 모두가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공했고 그대로 여여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도리를 납득을 못하겠지만 참나와 현재 나가 돌아나기 통신이 된다면 그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각 사찰에서도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모든 조상들이나 자식들이 또 죽은 영혼들이나 우리 산 사람 마음들이 은은히 모두가 도리를 알아야 되겠기에 말입니다. 또 알아야만 공덕이 되겠죠. 공덕이 안 되는 것은 내 정신계와 물질계가 합류화돼서 돌아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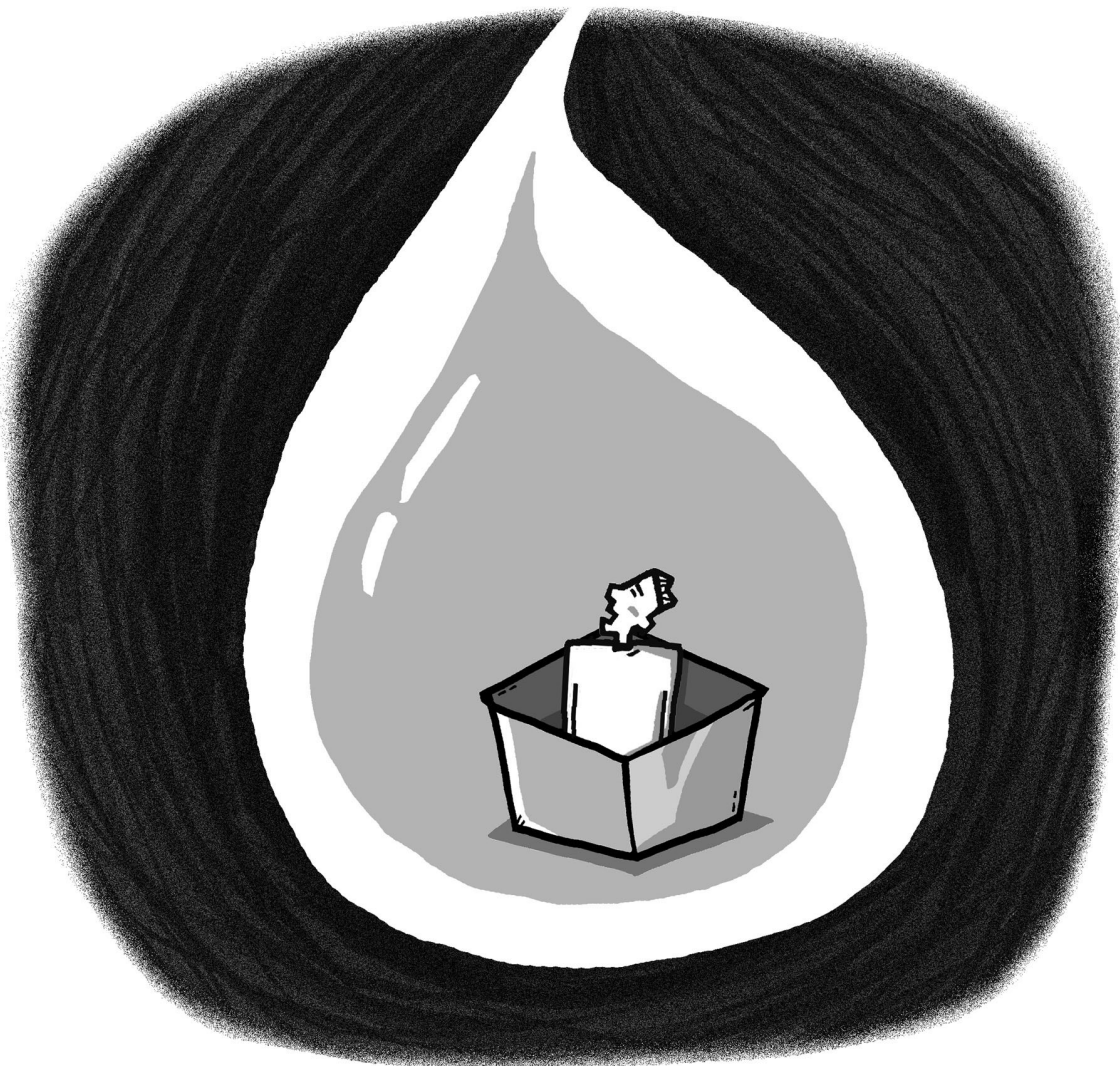
않기 때문에 공덕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합류화돼서 돌아간다면 공덕이 되죠. 즉 말하자면 공생·공심·공체·공용·공식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공을 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 응용을 그대로 하고 있고, 작용을 하는 겁니다. 한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자기를 못났으면 못난 대로 못났다고 생각하고,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를 아예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무시하는가 하면 잘났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법당에 여러분이 들어오게 되면 벌써 부처님이 여러 분 모셔져 있으면은 헛갈립니다. 이조 때에 스님네들을 탄압할 때에, 쌀 한 말만 갖다놓으면은 도저히 스님네들이 그걸 가지고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산중에 숨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신각, 칠성각 또 지장보살 신중당 모두 여러 분들을 해놓고 거기 쌀 한 말씩을 갖다놔야만 스님네들 대중이 다 먹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교 탄압을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개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법당에 들어오면 만불(萬佛)이 있다 할지라도, 일불(一佛)로 봐야 됩니다. 또 이것은 부처님 마음의 한 생각에 의해서 이름이 주어진다. 지장 또는 아미타, 아촉 또는 미륵, 관세음 또 지신이나 주해신이나 주림신이나 모든 이름이 말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 마음속에서 탄생한 천백억화신은 모습을 바꾸어가면서 천차만별의 여러분한테 다 천차만별의 모습으로 응신이 돼서 나타나 주신다고요. 그것도 과거가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현실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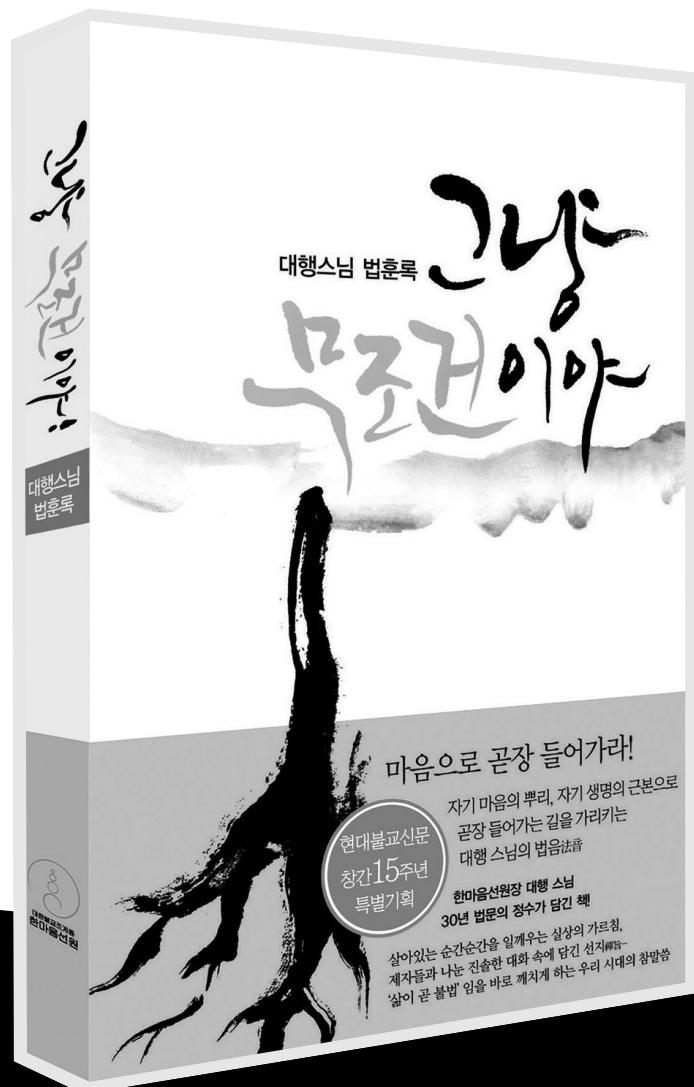
부처님은 오신 것이 없기 때문에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영원하고 끊임없이 생과사가 돌아나기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상을 칠성불 모두 해놔야 하더라도, 여러분이 각 사찰에 가보시면은 여러 가지로 놓여 있죠? 여러 부처님들이 말입니다. 그런 데에 사람의 마음이 헛갈려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도 여기 앉아계시면은 천차만별로 모

그림 · 최주현



30면으로 계속

##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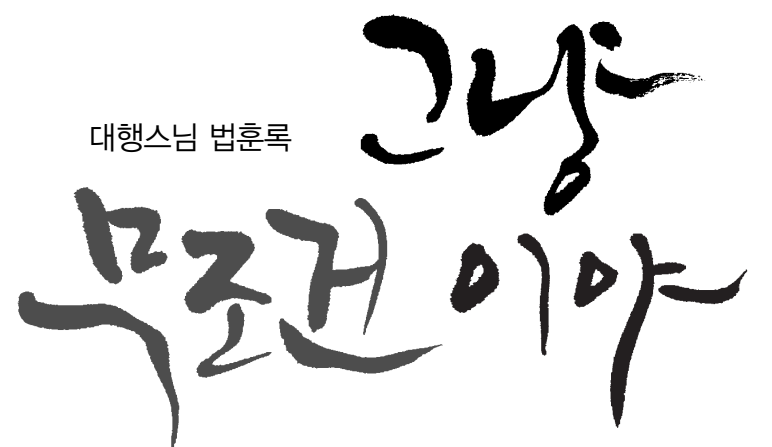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